

채란업에 유능한 일꾼이 참여해야

— 젊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



△윤형수사장 육추실에서

김포군 월곶면 봉골양계장.

스스로 밀바닥부터 시작했다고 말하며 갖은 어려움과 위험한 고비를 몸으로 체험하며 극복하였기에 어떠한 난관이 닥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봉골양계장 윤형수 사장.

그는 70년대초 집단양계단지인 선린촌에서 채란업을 시작하였다. 13년전인 77년 이곳 김포로 농장을 옮긴 후 지금까지 김포채란업을 받쳐왔다.

김포에 이주할 당시 계사이전비용에 모든 자금이 투입되어 자금력이 부족한데다 사료과동까지 곱

쳤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며 다행히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에서 사료를 대주고 알을 받아주어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계업을 천직으로 알고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평생 직업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며 지금 서울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원한다면 대물림을 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으며 아들이 스스로 양계업을 하겠다고 나서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려는 생각이다.

요즘 채란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축산업에 뜻을 품고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채란업에 동참해 주어야 하는데 요즘 신규 채란업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앞으로 채란업계를 끌어갈 맥이 단절되어 우리나라 채란양계산업이 지

리떨떨해지거나 앓을지 걱정됩니다”라고 표현하였다.

앞서 채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화시대를 맞아 채란업을 하려면 몇천수 규모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 2~3만수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 갈수록 노동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시설자동화와 기계화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남의 땅에 할 수 없고 내땅이 필요하다.

결국 채란계 양계장을 하려면 몇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축산업에 뜻을 품고 축산을 전공한 젊은 사람들이 수입개방 문제로 위축되어 있는데다 현실과 거리가 있는 너무 앞선 것만 생각하고 있어 엄청난 소요자금에 채란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란업 종사자 노령화

“요즘 채란양계인들이 모이는 자리를 가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30대의 젊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70대의 양계인들은 노후화된 시설을 가진 사람이 많고 일할 여력을 잃고 있어 언제든지 손을 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세들에게 대물림한 양계장도 있지만 그들은 채란업에 대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갖지 못하고 부모때보다 더 위축된 경영을 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란산업에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자질을 갖춘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현실에 너무 앞선 것만 들어오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채란업을 새로이 시작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없으면 맨몸으로 시작을 못합니까? 지금도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채란업을 하는 사람은 실제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시설을 갖추지 못해도 손으로 계분치우고 사료주어가며 시작하여 어느정도 여력이 생겼을 때 스크레파시설을 하고, 자동금이기도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채란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즘 조합에서 금융대출 받기도 쉬워졌고 사료회사의 협조를 받으면 자금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끈끈한 힘을 갖출 때 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김포지역에서도 처음부터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맨몸으로 부딪히며 시작하다시피 하는 사람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뛰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채란업계 전문인력 양성 아쉬워

또한 채란업계도 후진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는 신규업자가 생김으로써 물량과잉을 우려하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채란양계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의 유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수입개방이 본격화될 때 채란양계산업이 흐지부지 없어지거나 앓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분들이 혹 부동산 덕분에 부를 축적하였더라도 양계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후진양성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봉골양계장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채란계 5만수 규모로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규모에 비해 시설은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동 한동 계사시설을 개선하고 있어 윤사장의 말을 입증하고 있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직립식 케이지 같은 생산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반영구적인 시설을 갖추어 대물림할 수 있고, 채란업계에는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능한 일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양계**

□ 취재/권동원 기자